한국과 일본에서의 '해녀문화'의 창조 및 재발견과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등재운동

- 글로컬리제이션의 관점에서 -

우에스기 도미유키
(세이죠대학 문예학부 교수/세이죠대학 글로컬센터장)

머리말

본 발표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서서히 명확해진 한국과 일본에서의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운동의 성립과 전개과정을 보고하고, 글로컬리제이션(글로컬화)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생각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해녀문화란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잠수어업법을 생업으로 삼는 여성, 즉 여성의 생업기술과 의례, 생활습관 등을 말한다.

이러한 해녀문화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 또는 협력하여 '창조' 혹은 '재발견'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운동이 2000년대 초에 이루어져 서서히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표에서 말하는 해녀문화의 '창조'는 '해녀문화'라는 말 혹은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본론에서는 우선 해녀문화의 '창조' 혹은 '재발견'의 최대 계기가 된 글로벌한 장에서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의 성립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 조약의 채택에 호응해서 시작된 한국(제주도)과 일본(시마/도바지역)에서의 해녀문화의 창조 혹은 재발견과 무형문화유산등재운동의 성립과 전개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 때 해녀문화의 창조가 한국 제주도와 일본의 시마/도바 지역이라는 로컬한 지역과 로컬한 지역의 직접적인 연계와 상호간의 노력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자가 로컬한 장에서 협력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해녀문화가 뜻하지 않게 유네스코가 글로벌한 장에서 전개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근간, 즉 근대적인 문화와 사회개념의 재고 내지는 재편을 촉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그런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의 발표는 지금까지의 해녀심포지엄 발표와는 상당히 다르다. 즉 해녀물질의 지리적인 확산과 기술, 의복, 의례, 생활습관 등과 같은 소위 해녀문화 그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의 대주제인 해녀문화의 전승 및 보존과 직접 관련되는 것도 아니다. 나의 이번 발표는 심포지엄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해녀문화에 대해 나아가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것에 대한 현대적인 의미 내지는 의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해녀문화 연구'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매우 간단히 결론을 먼저 말해두고자 한다. 나는 한국과 일본의 국경을 넘어 전개되고 있는 해녀문화를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현상 내지는 운동이 현재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는 사회와 문화의 재편 내지는 재구축의 방향을 예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녀심포지엄에 참가하여 해녀문화를 살아 있는 해녀 여러분과 해녀문화를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한일 박물관 및 지자체, 영사관 여러분께는 생각지도 못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내 생각은 여러분이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인 현상과 운동은 세계의 사회와 문화의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이 있는 선구적인 현상 및 운동으로 생각한다. 나는 해녀문화 그 자체의 조사연구라는 점에서는 완전히 아마추어이다. 하지만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보이는 해녀문화를 둘러싼 현상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분께 한마디 드리고자 주제넘게 여기서 발표하고자 하는 것이다.

1. 글로벌한 맥락에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조약과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

한국과 일본의 해녀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현상과 운동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 배경이라고 할 만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조약과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두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네스코는 전세계적으로 교육과 과학, 문화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유산조약'(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조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체택했다(1975년 발효). 이래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인류전체를 위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전세계적으로 문화와 자연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하고 있다. 역사, 예술, 학술적으로 현저하게 보편적 가치를 지닌 기념비와 건조물군 등으로 구성되는 문화유산으로는 아프리카와 케냐의 킬리만자로와 미국의 그랜드캐년이, 문화유산으로는 중국의 만리장성과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복합유산으로는 과테말라북동부의 마야문명의 도시유적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모두들 기억이 생생하겠지만 2007년 6월, 이곳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등재제도가 인류가 공유하는 귀중한 자연과 문화의 보호 및 보존에 기여한 역할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세계유산 등재건수가 압도적으로 유럽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등재건수의 지역적 편중에는 다양한 요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유산등재 기준이 유럽의 '돌 문화'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등재기준이 '돌 문화'에 편중되어 있다는 의미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럽의 고대기념비나 유적이 거의 모두가 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해당대상이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그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상의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이 요구된다. 진정성이란 형상이나 재료 등이 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복원한 대상의 경우에는 완전히 원 상태로 복원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진정성이 인정된다. 이런 사실은 부식이나 해충에 약하고 복원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과 일본, 열대아시아 등의 '나무 문화'에서는 진정성이 인정되기 힘들며, 따라서 세계유산등재에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취약성에 대해서는 1994년 채택된 '세계유산조약의 글로벌 전략'(세계유산 목록에서의 불균형의 시정 및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전략' The Global Strategy for a Balanced, Representative and Credible World Heritage List)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세계유산등재건수가 구미에 편중되어 있는 보다 큰 요인은 세계유산이 자연유산이든 문화유산이든 간에 모두 유형유산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있었다. 그래서 세계유산조약이 유형의 문화유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2003년에 전통적인 음악, 무용, 연극, 풍속습관, 공예기술 등의 무형의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을 목적으로 한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하고(2006년 발효), 작년 2009년에 무형문화유산목록 등재를 시작했다.

세계유산조약의 글로벌 전략과 무형문화유산조약의 채택으로 상징되는 유네스코의 전지구적인 자연 및 문화에 대한 다양성의 보호 및 보존전략에 대응하여, 일본과 한국에서도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전통음악인 판소리와 제주도의 무속의례인 굿 등이, 일본에서는 닌교죠루리(人形淨瑠璃, 일본의 전통인형극)와 가부키 등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조약과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을 통한 인류가 공유할 유산의 보호 및 보존전략과 정책은 여기서는 상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시대별로 정치 및 문화 의미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해왔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문화전략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명확한 경계 내지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민족 내지 국민이 명확한 경계를 가진 하나의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한다는 의미에서, 근대적으로 본질주의적인 문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말할 것도 없이 글로벌화가 진행되어 사람과 물자, 정보 등이 대규모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이런 소위 '본질주의적'인 틀로 오늘날의 사회 및 문화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지고 있다. 유네스코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이러한 본질주의적인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방법이 바로 이번 내 발표의 주요 목적이다.

덧붙여 유네스코의 명예를 위해 한 마디 하자면, 세계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비교연구를 표방하는 나의 전공분야인 문화인류학과 사회인류학에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본질주의적'인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활개를 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오늘날의 인문, 사회과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로컬한 맥락-한국과 일본의 해녀문화의 '창조'와 무형문화유산등재운동

해녀의 잠수어법과 이와 관련된 각종 의례, 나아가서는 물질을 하는 여성들의 상호부조 조직과 합의제도 등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해녀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고대부터 한국 제주도의 해녀들에게 정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일괄해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해녀문화'로 간주하는 것은 적어도 2000년 이전에는 거의 없었다고 들었다. 나는 본 발표에서 '해녀문화'의 창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해녀문화'라는 표현과 말 혹은 개념이 2000년 이후의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해녀문화'라는 말 내지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물질과 물질을 둘러싼 사회제도, 의례, 구두전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해녀문화는 '창조'되었다기보다도 '재발견'되었다는 표현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제주도에서 해녀문화의 창조 혹은 재발견이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은 2000년 초에 시작된 제주도에 있는 관계자들(제주대학 및 후에 해녀박물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등)에 의한 자발적인 연구 움직임과, 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세계적인 규모의 스포츠 제전인 월드컵, 그리고 또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의 채택이 우연히 맞물린 점에 있다. 이런 로컬 차원의 사건과 글로벌 차원의 사건은 각각 개별적으로 생겨났지만 우연히 같은 시기에 맞물렸기 때문에 상호 관련되어지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행되어 갔다.

1) 한국의 해녀문화의 창조

내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 후에 무형문화유산등재운동으로 발전하는 해녀문화와 관련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개시된 것은 2001년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 해에 한국 국립제주대학교의 사회학자(Prof. Koh Cahng-Hoon)와 인류학자(Prof. Yoo Chul-Inn)분들을 중심으로 해녀의 사회와 문화를 포괄적이고 학술적으로 조사연구 하려는 야심적인 연구프로젝트인 '제주해녀의 해양문명사적 가치와 해녀학의 가능성 모색'이 시작되었다. 연구프로젝트에는 후에 해녀박물관 설립 당시부터 참여하게 된 좌혜경박사(Dr. Choa Hekyung)도 함께 했다.

이 해녀연구프로젝트는 해양문명사학적 관점에서 해녀의 사회 및 문화를 포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해녀학을 표방하려는 매우 야심적인 것이었다. 해녀연구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시하는 가운데 연구자들이 '해녀의 문화유산' 내지는 '해녀의 문화'라는 포괄적인 단어 또는 개념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해서 해녀문화의 내실이 서서히 '창조' 혹은 '재발견' 되어 간 듯하다. 그리고 이 연구프로젝트의 성과는 2006년에 조사보고서와 논문집으로 간행되었다.

2) 무형문화유산등재운동의 성립

한편 상기 연구프로젝트가 개시된 다음해인 2002년 여름(2002, 5, 31~6,30), FIFA의 제17회 월드컵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개최 되었는데, 그 중 한 경기가 6월 15일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한일공동개최, 특히 제주도에서의 개최라는 기념비적인 이벤트를 더욱 빛내기 위해 한국 제주도의 조직위원회는 개최지인 제주도에 어울리는 문화행사를 공모했다.

이 공모에 응하여 제주대학을 중심으로 한 해녀연구프로젝트팀은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세계적으로도 한일양국, 특히 제주도에 특징적인 해녀 및 해녀문화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안을 제출하여 채택되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월드컵개최에 앞서 2002년 6월 9일~11일,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해녀연구자들을 초청해서 제주시의 그랜드 호텔에서 '해녀의 가치관과 그 문화유산'(Values of Women Divers and their Cultural Heritage)이라는 주제를 갖고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에서는 해녀의 물질과 사회생활, 의례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심포지엄 발표의 기조는 해녀 및 해녀문화가 '평화의 섬', '여성의 섬'(여성의 지위가 높은 섬)으로서의 제주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는 점이었던 것 같다.

2002년에 개최된 제1회 국제해녀심포지엄에 대해서는 이번의 내 발표와 관련해서 특히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2가지 있다. 하나는 해녀에 관한 심포지엄의 제목의 일부인데, 처음으로 '해녀의 문화유산'(their [women divers'] cultural heritage)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후 해녀를 둘러싸고 '문화유산'과 '문화재'(cultural assets)라는 표현이 서서히 증가했으며, '해녀문화'라는 표현도 정착되어 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발상이 이 심포지엄을 통해 싹텄다는 사실이다. 심포지엄 제목의 일부가 '해녀의 문화유산'이었다는 사실에서 착상을 얻은 발표자의 한 사람(일리노이대학 명예교수 Prof. Emeritus David Plath) 이 당시 채택이 시간의 문제가 되고 있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해녀문화'를 등재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는 것이다(Prof. Yoo에 의함).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측 관계자들은 이후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다음해인 2003년 10월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이 채택됨에 따라 제주대학의 관계자들은 바로 한국문화관광부(일본의 문부과학성에 해당. 2008년 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 개칭) 문화재청에 해녀문화등재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간단히 거부당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해녀문화는 유산등재 기준인 걸작선(마스터 피스)가 아니다. 둘째, 해녀문화에 관한 연구 축적이 없다. 셋째, 무형문화유산등재요건인 당사자(해녀)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등이었다.

3) 제주도립 해녀박물관의 설립

그래서 제주대학의 연구자들은 성급한 등재운동을 일단 중단하고 등재운동의 전 단계로 해녀문화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녀문화를 해양문명사 안에 규정짓는다는 명목으로 해양수산부(일본의 농림수산청과 국토교통성해상보안청 등에 상당. 2008년 2월 이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흡수)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직적인 해녀문화연구를 개시했으며, 2005년에는 정보수집과 조사연구거점으로 세계 최초의 해녀 박물관인 '해녀박물관'을 설립하고 개관했다. 해녀문화의 창조 내지 재발견, 또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등재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녀박물

관'의 설립과 개관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설된 해녀박물관에서는 2006년 6월 7일~8일, 해녀박물관의 개관을 기념해서 '제주해녀 항일운동, 문화유산, 해양문명'이라는 제목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해녀의 물질과 생활에 관한 조사보고와 함께 해녀의 물질과 해양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관한 민속지식을 해녀문화로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할 가능성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시되고 논의되었다(제주대학의 유철인 교수 '제주도의 해녀-해녀의 무형문화유산과 지속적 개발'(Jeju Haenyeo [Women Divers]: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q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다음해 2007년 해녀문화의 무형문화유산등재운동에 힘을 실어준 역사적인 뉴스가 발표되었다. 2007년 6월 제주도의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자연경관이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최초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이 세계자연유산등재에 자극을 받아 해녀문화의 세계무형문화유산등재운동은 크게 진척되었다. 그 결과 얘기가 좀 비약되지만, 2009년 11월에는 해녀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제주도의 민속예능(무속의례)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해녀문화보다 앞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얘기를 다시 돌리면 제주도의 용암동굴 등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뉴스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2007년 10월 25일~26일에 해녀박물관에서 제2회 제주해녀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해녀문화의 창조 및 재발견, 무형문화유산등재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이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해녀문화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순서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녀문화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함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해녀문화를 공유하는 두 나라인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등재운동을 추진하면 어떤가라는 제안이 처음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논의되었다.

4) 일본측 관계자들에 대한 촉구

2007년 제2회 해녀심포지엄에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해녀문화를 공유하는 국가이며, 또한 제주도의 해녀들이 빈번하게 출가물질을 갔던 일본의 대표로 미에현 도바시에 있는 바다 박물관의 이시하라 요시카타 관장이 초대되었다. 이시하라 관장은 저명한 해녀연구자로 알려져 있는 분으로, 일본 전 지역의 해녀와 직접적인 교류를 하며 협력관계를 갖고 계신 몇 안 되는 분이다. 따라서 일본의 해녀연구자 혹은 해녀들과 교류를 하기 위한 중간역할자로는 최적의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시하라 관장에게 심포지엄의 종합토론장에서 한국 측 관계자들로부터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해녀문화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면 어떤가라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

이시하라 관장에 의하면, 본인은 한국 측의 요청에 이해를 보이고 찬성하기는 했지만, 이 요청에 당초에는 꽤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일본측은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한 적도 없고 애당초 해녀의 물질과 이와 관련된 의례를 문화유산으로서의 '해녀문화'로 간주할 수 있다고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제주도에 집

중되어 있는 한국의 해녀와는 달리 일본의 아마(해녀)는 도바/시마지방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일본각지에 분산되어 있으며, 서로간에 전혀 교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아마들을 과연 하나로 묶을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심포지엄 이후 해녀문화를 둘러싼 한일 간의 교류와 협력관계는 서서히 진전되어 갔다. 다음해 2008년 6월 20일~21일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3회 한일해녀국제심포지엄('제주해녀와 일본해녀의 무형유산' Intangible Heritages of Jeju Haenyeo and Japanese Ama)에는 바다박물관의 이시하라 관장 외에 일본의 아마 2명이 참가해서 교류를 심화시켰고, 그 자리에서 시마지역의 해녀도구를 한국의 해녀박물관에 기증했다. 얼마 전(2010년 3월말) 해녀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해녀박물관의 전시장 출구 쪽에 시마의 해녀도구 일습이 전시되어 있었다.

제3회 해녀심포지엄에 대해 특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첫째,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혹은 협력해서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사실이며 둘째, 일본 측도 '해녀문화'를 어업기술로써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민속적인 현상으로 보고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제3회 해녀심포지엄에서의 한국 측 관계자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일본 측 관계자들이 일본의 '해녀문화'를 창조 혹은 재발견하기 시작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5) 일본의 해녀문화의 '창조'

제3회해녀심포지엄 개최 후 얼마 안 있어 2008년 7월 중순에 바다박물관 이시하라관장(이시하라관장은 미에대학의 객원교수이기도 하다) 등 일본의 해녀연구자들은 미에(三重)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해녀연구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해녀연구회는 도바 시마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해녀의 역사와 물질법, 생활, 민속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개시했다.

2008년 7월 18일에 개최된 해녀연구회의 제1회연구회는 이시하라 관장의 강연과 함께 개최되었는데, 강연은 '시마(志摩)의 아마와 제주도의 해녀-해녀를 세계유산으로!'-라는 제목으로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계획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공표되었다. 이 강연은 한국 제주도 해녀의 물질과 생활, 민속을 무형문화재로 평가하여 시마의 아마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운동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그 움직임에 호응하자고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시하라 관장은 이 강연에서 '해녀문화'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용례가 일본 측에서 해녀문화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 측에서도 해녀의 물질법과 의례, 구두전승에 관한 조사연구가 이전부터 축적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문화유산이라는 의미에서 '문화'로 간주되는 일은 그때까지 없었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2008년 7월에 발족, 개시된 해녀연구회는 그 후에도 활발히 연구활동을 지속해서 2010년 8월 30일에는 제12회째 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6) 한일의 무형문화유산등재운동의 전개

2009년 6월 8일~9일에는 제주도 해녀박물관에서 제4회 국제학술해녀심포지엄('해녀와 무형문

화유산-유네스코대표목록과 보호수단' 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s of Haenyo: UNESCO Representative List and Safegurding Measures)이 개최되어 등재운동의 구체적인 일정이 검토되는 등, 등재운동은 더욱 진전되었다. 일본 측에서도 2009년 10월 3일에 도바시에서 제1회 '일본열도해녀대집합-해녀포럼-제1회 도바대회'가 개최되어 지금까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일본각지(이와테현, 이시카와현, 지바현, 도쿠시마현, 후쿠이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미에현)의 해녀와 한국 제주도의 해녀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이 포럼은 도바시가 주최했지만(시마시와 1년 마다 교대로 주최), 총무성과 국토교통성관광청, 미에현, 관계된 각시의 상공회의소와 관광협회가 후원하는 것이며, 민관이 하나가 되어 해녀문화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분위기를 고조시켜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인데 2010년 9월 25일에는 시마시 주최로 제2회 '일본열도아마대집합-해녀서밋-2010시마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아마서밋에도 일본전국(지바현 시라하마정, 시즈오카현, 후쿠이현, 오이타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미에현)에서 그리고 한국 제주도의 해녀가 모여 교류를 심화시키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등재운동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선언했다. 또한 이에 앞서 9월 4일에는 미에대학, 도바시, 바다박물관의 공동개최로 '산업으로서의 아마'라는 제목의 문화포럼도 개최되었다.

이상 한국과 일본의 해녀문화라는 말 또는 개념의 창조 및 재발견과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운동의 성립 및 발전의 경과를 대충 살펴보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조사중이므로 언급할 만한 보다 중요한 사건이 여럿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한일양국의 국가와 지자체 담당자, 혹은 상공회의소와 관광협회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향후 과제로 삼기를 바란다. 그렇기는 하나 2000년대 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10년 간 해녀문화의 창조 및 재발견과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운동의 성립과 발전에 관한 대략적인 움직임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주 간단히 정리하자면 요컨대 한국 제주도에서 2000년대 초에 시작된 매우 로컬하고 동시에 거시적인 해녀문화의 창조 및 재발견의 움직임이 월드컵 개최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조약의 성립이라는 글로벌한 움직임과 우연히 일치 혹은 연동되어 이러한 움직임과 운동이 국경을 넘어 도바와 시마 지역 등의 일본을 끌어들인 큰 물결이 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3. 로컬에서 글로벌로 - '근대적' 문화개념에 대한 도전

마지막으로 해녀문화의 창조 및 재발견과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운동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세계적인 규모로 현재 진행중인 사회와 문화의 재편 내지 재정립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이번에 다룬 '해녀문화'의 창조 및 재발견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등재를 위한 운동은 글로벌차

원의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전략, 즉 무형문화유산조약에 호응한 한일의 로컬차원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글로벌화 현상은 세계각지에서 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론할 것까지는 없다. 그러나 한일의 해녀문화를 둘러싸고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다. 그것은 유네스코의 글로벌한 문화전략 및 정책에 반응해서 한국 제주도라는 로컬한 장과 일본 도바 및 이세 시마라는 이 또한 매우 로컬한 장이 국경을 초월하여 직접 연결된 트랜스 로컬 내지 트랜스 내셔널한 현상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한 로컬과 로컬이 직접 연결된 결과,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유네스코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 문화 개념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1) '분산형문화' 내지 '네트워크형 문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에서는 특정 문화가 특정 지역 및 국가, 민족과 연결되어 해당민족과 국민의 정체성의 핵을 이룬다고 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문화 개념이 기본적으로 답습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하나의 문화가 반드시 특정 국가 및 민족으로만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인식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문화유산, 특히 산업유산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와 유적 안에 포괄되지 못하고 여러 국가에 걸쳐 지리적으로 근접하지 않는 복수의 유산으로 성립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세계유산위원회는 1994년 특정의 역사적 문화적 그룹에 포함되지만 광범위하게 분산된 복수의 특정의 역사적 유산을 하나의 유산군으로 등재하는 방법인 연속유산(serial nomination)을 장려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연속유산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예를 들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국경을 넘어 700개 이상의 동굴로 구성된 아그테렉 카르스트와 슬로바키아 카르스트의 동굴군 등이 있다. 혹은 국경을 넘지는 않았지만 이시하라 관장도 등재에 관여했다는 일본의 '이키산지의 영지와 참배길'도 연속유산의 방법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순수한 문화와 관련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 걸쳐 등재된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이 예능(민족음악, 댄스, 극 등)과 전승, 사회적 관습, 의식, 제례, 전통공예기술 등 특정의 국가와 민족집단 등과 연결된 지리적으로 비교적 좁은 범위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혹은 이미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문화 개념이 특정의 민족과 국민국가와 강하게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해녀문화'의 공유를 주장하고 해녀문화를 공동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의 문화가 특정의 지역과 국가, 민족의 경계를 넘어 분산되고(분산형문화), 네트워크상으로 연결된(네트워크형 문화)다는 매우 현대적인 사회 문화 상황의 승인을 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한국과 일본이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하나의 문화, '해녀문화'의 공유를 주장해서 해녀문화를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문화 개념, 즉 특정의 문화와 특정의 민족과 국가가 대응한다는 의미에서의 문화개념의 재편 및 재구축을 촉구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장래에는 '분산형 문화'와 '네트워크형 문화'로서의 문화의 방향성을 생각할 필요성이 생겨나지 않을까?

2) ‘살아 있는 문화’ 혹은 ‘살아 있는 전통’

세계유산등재의 기준요건인 불변성의 개념에 바탕한 진정성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의문과 이의가 제기되어 왔다. 불변=진정이라는 사고의 연원은 세계유산조약이 ‘베니스 헌장’(‘기념건조물 및 유적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국제헌장’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1964년 채택)의 사고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계유산등재 요건인 ‘돌 문화’에 바탕한 ‘진정성’에 대한 사고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1994년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조약의 글로벌 전략’을 채택했다. 글로벌 전략의 채택을 통해 세계유산의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또한 유산 내용의 다양화를 도모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 후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이 2003년에 채택되어 2006년에 발효되었는데, 무형문화유산에 관해서는 세계유산조약의 글로벌 전략 속에서 강조된 ‘살아있는 문화’(living culture)와 ‘살아 있는 전통’(living tradition)을 끄집어낸다는 이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에서 지금까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한국에서는 종묘제례악, 판소리 영창 등이며, 일본에서는 닌교죠루리문학과 가부키 등으로,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임에는 틀림없지만 반드시 일상생활과 관련된 ‘살아 있는’(living) 문화나 전통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해녀문화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예를 들면 물안경과 잠수복 등)을 수시로 도입한 문자 그대로 ‘살아 있는 문화’이며, ‘살아 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다. 따라서 해녀문화를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것은 유네스코의 글로벌 전략의 이념을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도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전략 도입 이전의 불변이라는 의미에서의 진정성에 바탕한 오랜 타입의 문화개념에 최종적인 변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문화의 의미

2003년에 채택된 유네스코의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등재분야에는 구두전승 및 예능, 제례와 의례, 전통공예기술 등을 들 수 있다. 등재분야의 항목만을 보면 우리는 매우 평범한 예능과 의례를 연상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대체로 완성도가 많이 세련되어서 우아한 아름다움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뿐이다. 앞서 소개한 한국과 일본의 무형문화유산, 한국의 종묘제례악과 일본의 닌교죠루리문학 등도 호화찬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의례 및 예능으로서는 매우 세련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이 결과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세련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유형문화유산 등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세계유산에 등재되어야 할 대상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걸작선(마스터 피스)이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바꿔 말하면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예술성이 중요한 등재요건이라는 사실이다.

해녀문화는 반드시 세련되지 못하고 우아한 아름다움도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현저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걸작선(마스터 피스)'이라는 등재기준에서는 벗어나 있는지도 모른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는 앞서 소개한 세계유산조약의 글로벌 전략을 채택함에 있어 세계유산을 단지 '물체'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을 가진 사람들과의 정체성과 존엄 등의 문화적인 표현과도 관련된 것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그 유산을 가진 사회 내지 집단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존하며, 문화의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해녀와 아마는 해녀문화의 창조 내지 재발견을 통해 자신의 생업과 생활을 재발견하고 서서히 해녀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된 해녀심포지엄과 해녀포럼, 아마서밋에는 한국과 일본 각지의 해녀와 아마들이 집합해서 교류를 증진함과 동시에 직접 의견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해녀문화를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는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조약의 글로벌 전략 및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에서 명시한 문화에 대한 의미의 확대해석, 즉 자부심과 정체성으로 연결된 문화의 개념을 인정하고 실체화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맺음말

국경을 초월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 협력을 통한 해녀문화의 창조 내지 재발견과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등재운동은 글로벌 연구의 관점에 입각하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조약 및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이라는 글로벌한 문화정책 및 전략에 대응한 매우 평범한 로컬한 현상 및 운동에 불과하다. 그러나 글로벌화와 로컬화는 늘 동시에 진행되며 또한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진행된다는 글로컬화의 사고에 바탕한 글로컬 연구의 관점에 입각하면, 이런 매우 당연한 현상 및 운동이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유네스코의 글로벌한 문화정책 및 전략이라는 문맥 속에서 한국의 제주도와 일본의 도바/시마지역이라는 소위 로컬한 나라 안의 더욱 로컬한 지역 간에 국경을 초월해서 직접 연계하고 해녀문화라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재발견하며, 또한 해녀문화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운동을 통해, 뜻하지 않게 글로벌차원의 근대적인 문화 및 사회개념의 재고 내지 재편을 촉구하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미흡한 발표였지만 내 발표를 통해 해녀문화와 살아 가는 해녀 여러분과 해녀문화를 창조 내지 재발견함으로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해녀연구자 및 국가, 지자체, 혹은 그 외의 관계자 여러분이 해녀문화를 둘러싼 현상 내지 운동이 바로 세계의 사회 및 문화현상의 움직임과 연동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의 사회 및 문화현상을 선도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조금이라도 느끼셨기를 바란다.

韓国と日本における「海女文化」の創造・再発見と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登録運動

―グローカリゼーションの観点から ―

上杉 富之
(成城大学文芸学部教授・成城大学グローカル研究センター長)

はじめに

本発表は、2000年代半ば以降に徐々に明確となってきた、韓国と日本における「海女文化」を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登録しようとする運動の成立と展開の過程を報告し、グローカリゼーション（グローカル化）の観点からその意味を考えようとするものです。ここでいう海女文化とは、言うまでもないことですが、韓国と日本に特有とされる潜水漁法を生業（なりわい）とする女性、すなわち海女の生業技術や儀礼、生活習慣等のことです。この海女文化を、韓国と日本が共同ないし協力して「創造」ないし「再発見」して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登録しようとする運動が2000年代の初めに成立し、徐々に盛んになってきているのは皆さんもご存知の通りです。なお、本発表でいう海女文化の「創造」とは、「海女文化」という言葉ないし概念を創り出すことだとご理解ください。

さて、以下、まず、海女文化の「創造」ないし「再発見」の最大の契機となった、グローバルな場における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の成立について述べます。次に、この条約の採択に呼応して始まった、韓国（済州島）と日本（志摩・鳥羽地方）における海女文化の創造ないし再発見と、無形文化遺産登録運動の成立と展開について述べます。その際、海女文化の創造が、韓国の済州島と日本の志摩・鳥羽地方というローカルな場とローカルな場の直接的な結び付きと相互の働き掛けによって行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特に注目します。そして、最後に、韓日の関係者がローカルな場で共同・協力して創り上げつつある海女文化が、期せずして、ユネスコがグローバルな場で展開している文化政策の根幹、すなわち近代的な文化や社会概念の再考ないし再編を迫るもの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ます。

ところで、本論に入る前に、一言お断りを申し上げ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私の発表は海女シンポジウムのこれまでの発表とはかなり異なっています。私の発表は、海女漁の地理的な広がりや技術、装束、儀礼、生活習慣などというような言わば海女文化そのものに関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また、今回のシンポジウムのタイトル・テーマとなっている、海女文化の伝承や保存に直接かかわるものでもありません。私の今回の発表は、シンポジウムに参加している皆さんが海女文化について語り、さらに、海女文化を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登録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

の現代的な意味ないし意義を検討するもので、いわば「海女文化の研究」を研究するものです。

それは何のためなんだ？　何の意味があるんだ？　と疑問を呈される方が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そこで、ごく簡単に、結論をあらかじめ先に申し上げ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私は、韓国と日本の国境を越えて展開している海女文化をめぐる社会的・文化的な現象ないし運動が、現在、世界的な規模で進みつつある社会や文化の再編ないし再構築のあり方や方向性を予見する上できわめて重要なも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海女シンポジウムに参加し海女文化を生きている海女の皆さんや、海女文化を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運動を先導している韓日の博物館や地方自治体、領事館の皆さんには思いも寄らないことかも知れませんが、私から見れば、皆さんがかかわっている社会的・文化的な現象や運動は世界の社会や文化のあり方を大きく変える可能性を秘めた先駆的な現象・運動のように思える訳です。私は海女文化そのものの調査研究という点ではまったくの素人です。が、素人であるがゆえに見えてきた海女文化をめぐる現象や運動の重要性について皆さんに一言申し上げたくて、身のほども弁えずにここで発表する次第です。

1．グローバルな文脈―ユネスコの世界遺産条約と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

韓国と日本の海女文化をめぐるさまざまな現象や運動のことについてお話する前に、その背景とでも言うべきユネスコの世界遺産条約と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について、簡単に確認を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周知のように、ユネスコ（UNESCO：国際連合教育科学文化機関）は、世界的規模で教育や科学、文化に関わる諸問題に取り組む唯一の国際機関です。ユネスコは、1972年、「世界遺産条約」（「世界の文化遺産及び自然遺産の保護に関する条約」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を採択しました（1975年に発効）。以来、「顕著な普遍的価値」を有する自然遺産及び文化遺産を人類全体のための世界遺産として登録し、世界規模で文化・自然遺産の保護・保存を行っています。世界遺産は、景観上顕著な普遍的価値を有する自然の地域から成る自然遺産と、歴史・芸術・学術上顕著な普遍的な価値を有する記念碑（モニュメント）や建造物群などから成る文化遺産、自然遺産と文化遺産の両方の要件を満たしている複合遺産から構成されています。自然遺産としてはアフリカ・ケニアのキリマンジャロやアメリカのグランドキャニオンが、文化遺産としては中国の万里の長城やエジプトのピラミッドが、複合遺産としてはグアテマラ北東部のマヤ文明の都市遺跡などがあります。韓国では、皆さんの記憶に新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が、2007年6月に、ここ済州島の火山島と溶岩洞窟が自然遺産に登録されています。

ユネスコの世界遺産登録制度が人類の共有する貴重な自然や文化の保護・保存に果たした役割は、きわめて高く評価されています。しかしながら、まったく問題がないわけでもありません。例えば、世界遺産への登録物件数が圧倒的にヨーロッパに偏ってい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ます。

登録物件数の地域的な偏りにはさまざまな要因が考えられますが、その一つに、遺産登録の基準がヨーロッパの「石の文化」に基づいている点が指摘されています。登録基準が「石の文化」に偏っているという意味は、世界遺産に登録されるヨーロッパの古代モニュメンや遺跡がほとんどすべて石造り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世界遺産へ登録するためのもっとも重要な要件は、当該物件が、「顕著な普遍的価値」を有すことで、その正統性が認められるためには、物件の真正性（authenticity）と完全性（integrity）が求められます。真正性とは、形状や材料などが元の状態を保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復元した物件の場合には、完全に元の状態に修復されている場合にのみ例外的に真正性が認められます。ということは、腐食や虫害に弱く、修復を繰り返さざるを得ない韓国や日本、熱帯アジア等の「木の文化」では真正性が認められにくく、従って、世界遺産登録に不利になる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ます。

この不備については、1994年に採択された「世界遺産条約のグローバル・ストラテジー」（「世界遺産一覧表における不均衡の是正及び代表性・信頼性の確保のためのグローバルストラテジー」The Global Strategy for a Balanced, Representative and Credible World Heritage List）によっていくぶんかの改善が図られています。

ところで、世界遺産登録物件数が欧米に偏っているより大きな原因は、世界遺産が自然遺産であれ文化遺産であれ、すべて有形遺産に限定されていたことにありました。そこで、世界遺産条約が有形の文化遺産のみを対象としていることの不備を補うため、ユネスコは、2003年に、伝統的な音楽、舞踊、演劇、風俗習慣、工芸技術など、無形の文化遺産の保護・保存を目的とした「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を採択し（2006年発効）、昨2009年に無形文化遺産リストへの登録を開始しました。

世界遺産条約のローバル・ストラテジーや無形文化遺産条約の採択に象徴される、ユネスコの地球規模での自然や文化の多様性の保護・保存戦略に対応し、日本や韓国でも世界遺産や無形文化遺産への登録が進められています。これまでに、韓国では伝統音楽のパンソリや済州島の巫俗儀礼クッ等が、日本では人形浄瑠璃や歌舞伎等が無形文化遺産として登録されています。

ユネスコの世界遺産条約や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を通した人類共有の遺産の保護・保存戦略・政策は、ここでは詳しく申し上げませが、時代時代の政治や文化の意味の変化に応じて変化してきました。しかしながら、ユネスコの文化戦略・政策は基本的に、明確な境界ないし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った一つの民族ないし国民が、明確な境界を持った一つの文化を保持していると考えているという意味で、近代的で本質主義的な文化の概念に基づいていると思われます。言うまでもなく、グローバル化が進み人やモノ、情報などが大規模かつ迅速に移動をする今日の社会では、こうしたいわゆる「本質主義的」な枠組みでは今日的な社会や文化現象を理解することは到底できなくなりつつあります。ユネスコがいまだに引きずっているうした本質主義的な文化や社会の理解の仕方こそが、今回の私の発表のメイン・ターゲットになります。

なお、ユネスコの名誉のために申し上げておきますと、世界の文化や社会の比較研究を標榜する私の専門分野、文化人類学や社会人類学においてもいまだにこの種の「本質主義的」な文化や社会の理解が幅を利かせており、この問題は、今日の人文·社会科学が抱えているもっとも大きな課題の一つ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2．ローカルな文脈―韓国と日本における海女文化の「創造」と無形文化遺産登録運動

海女の潜水漁法やそれにまつわる各種の儀礼、さらには、海女として潜水漁に携わる女性たちの相互扶助組織や合議制度等は、当然のことではありますが、海女の歴史と同じくらい古い時代から韓国·済州島の海女の中に根付いていたものと思われます。しかしながら、それらを一括して一つの体系を成す「海女文化」と見なすことは、少なくとも、2000年以前にはほとんどなかったと聞いております。私は、本発表で、「海女文化」の創造という言い方をしておりますが、それは、「海女文化」という言い方や言葉ないし概念が2000年以降の比較的最近になってから創り出されたという意味です。とは言え、「海女文化」という言葉ないし概念が創り出される前から海女漁や海女漁をめぐる社会制度、儀礼、口頭伝承が厳然として存在していたということを考えますと、海女文化は「創造」されたというよりも「再発見」されたと言った方が良いのかも知れません。

済州島で海女文化の創造ないし再発見が体系的に進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2000年代初めに始まった済州島の関係者（済州大学や後に海女博物館等に所属する研究者等）による自発的な研究の動きと、それとはまったく無関係に済州島で開催された世界的規模でのスポーツの祭典·サッカーのワールドカップ、そしてまた、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の採択が偶然重なったことにあります。こうしたローカルレベルの出来事とグローバルレベルの出来事はそれぞれ別個に生じていたのですが、たまたま同時期に重なっていたが故に相互に関連付けられ、互いに影響を及ぼし合いながら進行していきます。

1）韓国における海女文化の「創造」

私が関係者の皆さんにいろいろお聞きしたところでは、韓国側で、後に無形文化遺産登録運動に発展する海女文化に関する集中的·体系的な調査研究が開始されたのは2001年のことだったようです。この年、韓国国立済州大学の社会学者（Prof. Koh Cahng-Hoon）や人類学者（Prof. Yoo Chul-Inn）の先生方を中心に、海女の社会と文化を包括的·学際的に調査研究しようという野心的な研究プロジェクト·「済州海女における海洋文明史的価値と海女学の可能性の模索」が開始されました。研究プロジェクトには、後に海女博物館に設立メンバーとして参加することになるチャ·ヘギョン博士（Dr. Choa Hekyung）も参加していたとのことです。

この海女研究プロジェクトは、海洋文明史学的観点から、海女の社会や文化を包括的に調査研究

し、海女学を打ち立てようとするきわめて野心的なものでした。海女研究プロジェクトを企画・実施する中で、研究者たちが「海女の文化遺産」ないし「海女の文化」という包括的な言葉ないし概念を使い始め、かくして海女文化の内実が徐々に「創造」ないし「再発見」されて行ったようです。なお、この研究プロジェクトの成果は、2006年に大部の調査報告書・論文集として刊行されています。

2）無形文化遺産登録運動の成立

ところで、上記研究プロジェクトが開始された翌2002年の夏（2002年の5月31日～6月30日）、国際サッカー連盟（FIFA）の第17回ワールドカップが韓国と日本の共催で開催されましたが、一連のゲームの一つが、6月15日、済州島で開催されました。韓日共同のワールドカップの開催、特に済州島での開催という記念すべきイベントに花を添えるため、韓国済州道の組織委員会は開催地・済州島に相応しい文化行事の募集をしました。この公募に応え、済州大学を中心とする海女研究プロジェクトのメンバーは、韓国と日本が共有し、世界の中でも韓日両国、特に済州島に特徴的な海女及び海女文化に関するシンポジジウムを開催する案を提出し、採択されました。そして、済州島でのワールドカップ開催に先立つ2002年6月9日～11日、日本を含めた世界の海女研究者を招いて、済州市のグランドホテルで、「海女の価値観とその文化遺産」（Values of Women Divers and their Cultural Heritage）と題する国際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ました。シンポジウムでは、海女の潜水漁や社会生活、儀礼など、多種多様のテーマ・トピックが扱われました。が、シンポジウム発表の基調は、海女及び海女の文化が、「平和の島」、「女性の島」（女性の地位が高い島）としての済州島を象徴する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だったようです。

2002年に開催された第1回国際海女シンポジウムについては、今回の私の発表に関連して、特筆すべきことが二つあります。一つは、海女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のタイトルの一部として、初めて「海女の文化遺産」（their [women divers'] cultural heritage）という言葉が使われたということです。以降、海女をめぐって「文化遺産」や「文化財」（cultural assets）という言い方が徐々に増え、「海女文化」という言い方も定着していきました。

そしてもう一つは、海女文化を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という発想が、このシンポジウムを通して芽生えたということです。シンポジウムのタイトルの一部が「海女の文化遺産」であったことからは着想を得た発表者の一人（イリノイ大学名誉教授・Prof. Emeritus David Plath）が、当時、採択が時間の問題となっていた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海女文化」を登録してはどうかと提案したということです（Prof.Yoo談）。この発言を受け、韓国側関係者は以来、海女文化を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可能性を探り始めました。

翌2003年10月、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が採択されたことを受けて、済州大学の関係者たちはさっそく韓国文化観光部（日本の文部科学省に相当。2008年2月より文化体育観光部に改称）文化財庁に海女文化登録の可能性を打診しました。しかしながら、この提案はあえなく拒否されたとのこと

です。その理由は、①海女文化は遺産登録の基準となるマスターピース（傑出した文物）ではない、②海女文化に関する研究の蓄積がない、③無形文化遺産登録要件である、当事者（海女）の共感が得られていないなどでした。

3）済州道立海女博物館の設立

そこで、済州大学の関係者たちは性急な登録運動をいったん中断し、登録運動の前段階として、海女文化の研究を進めることにしました。海女文化を海洋文明史の中に位置付けるという名目で海洋水産部（日本の農林水産省水産庁や国土交通省海上保安庁等に相当。2008年2月以降、国土海洋部と農林水産食品部に吸収）の財政的支援を得て組織的な海女文化研究を開始し、2005年には、情報収集・調査研究拠点として世界初の海女の博物館である「海女博物館」を設立・開館しました。海女文化の創造ないし再発見、そしてまた、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登録運動という観点からすると、「海女博物館」の設立・開館はきわめて大きな意味を持つものと言えるでしょう。

新設の海女博物館では、2006年の6月7日～8日、海女博物館の開館を記念して、「済州海女ー抗日運動、文化遺産、海洋文明」と題する国際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ました。このシンポジウムでは、海女の潜水漁や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とともに、海女の潜水漁や海洋資源の持続的利用に関する民俗知識を海女文化として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可能性が初めて公的に提示され、議論されました（済州大学のYoo Chul - In教授「済州島の海女 - 海女の無形文化遺産と持続的開発」（Jeju Haenyeo [Women Divers]: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q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翌2007年、海女文化の無形文化遺産登録運動に弾みをつける歴史的なニュースが発表されました。2007年6月、済州島の世界でも稀に見る自然景観が「済州火山島と溶岩洞窟」という名目で、韓国初の世界自然遺産に登録されました。この世界自然遺産への登録に刺激を受け、海女文化の世界無形文化遺産登録運動は大きく進みました。その結果、少し話が飛びますが、2009年11月には、海女文化と切り離せない関係にある済州島の民俗芸能（巫俗儀礼）「済州チルモリ堂燃燈クッ」（チルモリダン・ヨンドン・クッ）が、海女文化に先駆けて無形文化遺産に登録されました。

話を元に戻しますが、済州島の溶岩洞窟等が世界自然遺産に登録されたというニュースの興奮が冷めやらない2007年10月25日～26日に、海女博物館において第2回済州海女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ました。このシンポジウムは、海女文化の創造・再発見や無形文化遺産登録運動という観点から見ますと、二つの点で重要です。一つには、このシンポジウムで初めて、海女文化を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という明確かつ具体的な目標・手順が示されました。そしてもう一つ、海女文化を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に当たっては、世界の中で海女文化を共有する２つの国、韓国と日本が共同で登録運動を進めてはどうかという提案が初めて公的な場で成されました。

4）日本側関係者への働きかけ

2007年の第2回海女シンポジウムには、世界的に見ても数少ない海女文化を共有する国であり、また、済州島の海女たちが頻繁に出稼ぎに行っていた日本の代表として、三重県・鳥羽市にある海の博物館・石原義剛（よしかた）館長が招待されていました。石原館長はご自身が著名な海女研究者として知られている方ですが、それとともに、日本中の海女と直接交流を持ち、協力関係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数少ない方です。従って、日本の海女研究者あるいは海女さんたちと交流をするためのコーディネーターとしては最適の人であると申せましょう。その石原館長に対して、シンポジウムの総合討論の場で、韓国側関係者から、韓国と日本が共同で海女文化を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登録してはどうかとの提案がなされたとのことです。

石原館長によりますと、石原館長は韓国側の呼び掛けに理解を示し賛同したものの、この申し出に、当初、かなり困惑されたとのことです。と言いますのも、日本側は海女文化を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などということを考えたこともなく、そもそも、海女の潜水漁やそれにまつわる儀礼を文化遺産としての「海女文化」とみなしうるとは思ってもみ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した。さらにまた、済州島に集中している韓国の海女とは異なり、日本の海女は鳥羽・志摩地方にかなり集中しているものの日本各地に分散しており、互いにまったく交流がないので、日本の海女たちを果たして一つにまとめる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懸念があったとのことでした。

とは言え、このシンポジウム以降、海女文化をめぐる韓日の交流・協力関係は徐々に進展して行きました。翌2008年6月20日～21日に済州島海女博物館で開催された第3回韓日海女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済州海女と日本海女の無形遺産」Intangible Heritages of Jeju Haenyeo and Japanese Ama） には、海の博物館・石原館長の他に、日本の海女2人が参加して交流を深めるとともに、その場で、志摩地方の海女道具1式を韓国・海女博物館に寄贈しました。先日（2010年3月末）、海女博物館を訪問しましたが、海女博物館の展示場の出口の辺りに志摩の海女道具一式が展示されていました。

第3回海女シンポジウムについて特筆すべきことは、一つには、韓国と日本で共同ないし協力して海女文化を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ことを対外的に表明したことと、もう一つは、日本側も、「海女文化」を漁業技術としてのみならず歴史的、社会的、民俗的な現象と見て研究し始めたということです。第3回海女シンポジウムでの韓国側関係者の要請、呼びかけ応答して、日本側関係者が日本の「海女文化」を創造ないし再発見し始めたと言ってよいと思います。

5）日本における海女文化の「創造」

第3回海女シンポジウムの開催後ほどなくして、2008年7月半ばに、海の博物館・石原館長（石原館長は三重大学の客員教授でもある）ら日本の海女研究者は、三重大学を拠点とする海女研究会を立ち上げました。そして、海女研究会は、鳥羽・志摩を中心とする日本の海女の歴史や漁法、生活、民俗等に関する調査研究を開始しました。

2008年7月18日に開催された海女研究会の第1回研究会は、石原館長の講演と抱き合わせで開催さ

れましたが、講演は「志摩の海女と済州島の海女ー海女を世界遺産に！ー」と題され、海女文化を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という計画が日本で初めて公表されました。同講演は、韓国済州島の海女の潜水漁や生活、民俗を無形文化財として評価し、志摩の海女とともにユネスコの世界無形文化遺産に登録しようとする運動があることを紹介し、その動きに呼応しようと呼びかけるものでした。石原館長はこの講演（案内チラシ）で「海女文化」という言葉を使っていますが、この用例が、日本側で海女文化という言葉が使われた最初期のも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日本側でも海女の漁法や儀礼、口頭伝承に関する調査研究が以前から蓄積されてはいましたが、それらが文化遺産という意味で「文化」とみなされることはそれまでなかったのではなかと思います。なお、2008年7月に発足・開始した海女研究会はその後も活発に研究活動を継続し、2010年8月30日には第12回目の研究会を開催しています。

6）韓日における無形文化遺産登録運動の展開

2009年の6月8日～9日には、済州島・海女博物館において第4回国際学術海女シンポジウム（「海女と無形文化遺産ーユネスコ代表リストと保護手段」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s of Haenyo: UNESCO Representative List and Safegurding Measures）が開催され、登録運動の具体的スケジュールが検討される等、登録運動はさらに進展しました。日本側でも、2009年10月3日に鳥羽市で第1回目の「日本列島海女さん大集合ー海女フォーラムー第1回鳥羽大会」が開催され、これまで互い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なかった日本各地（岩手県久慈市、石川県輪島市、千葉県白浜町、福井県三国町、徳島県美波町、福岡県宗像市、長崎県壱岐市、熊本県天草市、三重県志摩市、三重県鳥羽市）の海女さんと韓国済州島の海女さんが初めて一堂に会しました。このフォーラムは鳥羽市が主催しましたが（志摩市と１年ごとに交代で主催）、総務省や国土交通省観光庁、三重県、関係各市の商工会や観光協会が後援するものであり、官民一体となって海女文化を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機運を盛り上げていったと言えるでしょう。

つい先日のことですが、2010年9月25日には、志摩市の主催で第2回「日本列島海女さん大集合ー海女サミットー2010志摩大会」が開催されました。この海女サミットにも、日本全国（千葉県白浜町、静岡県下田市、福井県三国町、大分県臼杵市、福岡県宗像市、佐賀県玄海町、長崎県壱岐市、三重県鳥羽市、三重県志摩市）から、そしてまた韓国済州島から海女さんたちが集まり交流を深めるとともに、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登録運動をさらに進めることが宣言されました。また、これに先立ち、9月4日には、三重大学・鳥羽市・海の博物館の共催で、「産業としての海女」と題する文化フォーラムも開催されています。

以上、韓国と日本における海女文化という言葉ないし概念の創造・再発見と、海女文化をユネスコの世界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運動の成立及び発展の経過をざっと見てきました。これらについては、現在、まだ調査中ですので、言及すべきより重要な出来事がいくつもあったと思います。ま

た、運動に直接・間接に関与している韓日両国の国や地方自治体の担当者、あるいは商工会や観光協会の皆さんの取り組みについてはほとんど情報が得られていません。今後の課題と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とは言え、2000年代初めから今日に至るまでの10年間の海女文化の創造、再発見と、海女文化を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運動の成立と発展に関する大まかな動きはわかっていただけ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ごく簡単にまとめますと、要するに、韓国済州島で2000年代初めに始まったきわめてローカルかつミクロな海女文化の創造、再発見の動きが、サッカーのワールドカップ開催や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条約の成立というグローバルな動きと偶然に一致ないし共振してやや大きな波となり、この動き・運動が国境を越えて鳥羽・志摩地方等の日本を巻き込む大きなうねりになりつつあると言ってよいでしょう。

3．ローカルからグローバルへ―「近代的」文化概念への挑戦―

最後に、海女文化の創造・再発見と海女文化を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運動の成立と発展過程を、世界的な規模で現在進行中の社会と文化の再編ないし再構築という観点から検討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今回取り上げた「海女文化」の創造・再発見と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登録に向けた運動は、グローバルレベルのユネスコの文化政策・戦略、すなわち無形文化遺産条約に共振・対応した韓日のローカルレベルでの動きであるということができましょう。こうしたグローバル化現象は世界各地で起こっていますので、取り立てて問題にすることは何もありません。が、韓日の海女文化をめぐっては特筆すべきことが一つあります。それは、ユネスコのグローバルな文化戦略・政策に反応して、韓国済州島というローカルな場と、日本の鳥羽や伊勢・志摩というこれまたきわめてローカルな場が国境を越えて直接結びついたトランス・ローカルないし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現象であったという点です。そしてまた、ローカルとローカルが直接結びついた結果、グローバルに活動するユネスコが当初想定していなかったような新たな社会・文化概念をもたらしつつあるという点で特筆に値します。

1）「分散型文化」ないし「ネットワーク型文化」

ユネスコの世界文化遺産の登録基準では、特定の文化が特定の地域や国、民族と結びついて当該民族・国民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核を成すというような、近代的な意味での文化の概念が基本的に踏襲されているように思われます。もちろん、世界遺産委員会でも、一つの文化が必ずしも特定の国や民族だけに結び付いたものではないことを認識してはいます。例えば、文化遺産、特に産業遺産が必ずしも一つの国や遺跡の中に収まらず複数の国にまたがったり地理的に近接していない複数の遺産から成立することに鑑み、世界遺産委員会は、1994年、特定の歴史的・文化的グループに含

まれるものの広範囲に分散する複数の特定の歴史的遺産を一つの遺産群として登録する手法シリアル・ノミネーション（serial nomination）を推奨しています。文化遺産ではありませんが、シリアル・ノミネーションの具体例としては、例えば、ハンガリーとスロバキアの国境を越えて700以上の洞窟で構成されるアグテレック・カルストとスロバキア・カルストの洞窟群などがあります。あるいはまた、国境を超え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が、石原館長も登録に関わったと聞いている、日本の「紀伊山地の霊場と参詣道」もシリアル・ノミネーションの手法で世界遺産に登録されています。

しかしながら、純然たる文化をめぐる遺産とでも言うべき無形文化遺産に関しては、これまで、複数の国にまたがって登録されたものはないように思います。それは、無形文化遺産が、芸能（民族音楽・ダンス・劇など）や伝承、社会的慣習、儀式、祭礼、伝統工芸技術など特定の国や民族集団等と結びついた、地理的に比較的狭い範囲に限定されているためだと思われます。あるいはまた、すでに述べましたように、これまで文化の概念が特定の民族や国民国家と強く結び付けられていたためだと思われます。

これに対し、韓国と日本が「海女文化」の共有を主張し、海女文化を共同で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という事態は、特定の文化が特定の地域や国、民族の境界を越えて分散し（分散型文化）、ネットワーク状に結び付いている（ネットワーク型文化）というきわめて今日的な社会・文化状況の承認を求めることを意味します。言葉を換えて言いますと、韓国と日本が民族や国境を越えた一つの文化、「海女文化」の共有を主張し、海女文化を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ということは、従来の文化の概念、すなわち特定の文化と特定の民族や国家が対応するという意味での文化概念の再編・再構築を促す可能性を孕むものだと考えます。将来的には、「分散型文化」や「ネットワーク型文化」としての文化の在り方を考える必要が出てく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2）「生きた文化」あるいは「生きた伝統」

世界遺産登録の基準要件である、不変性の概念に基づく真正性の考え方に対しては、長い間疑問や異議が提出されていました。不変＝真正という考え方の淵源は、世界遺産条約が「ヴェニス憲章」(「記念建造物および遺跡の保全と修復のための国際憲章」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1964年採択)の考え方を踏襲しているためだと言われています。世界遺産登録の要件である、「石の文化」に基づく「真正性」の考え方の不備を是正するため、1994年、世界遺産委員会は「世界遺産条約のグローバル・ストラテジー」を採択しました。グローバル・ストラテジーの採択を通して、世界遺産の地域的分布の不均衡を是正し、また、遺産の内容の多様化を図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その後、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が2003年に採択され、2006年から発効しましたが、無形文化遺産に関しては、世界遺産条約のグローバル・ストラテジーの中で強調された「生きた文化」（living culture）や「生きた伝統」(living tradition）を掬いあげるという理念が必ずしも生かされていると

は思えません。韓国と日本でこれまでに無形文化遺産として登録されたのは、韓国では宋廟先祖のための儀礼及び祭礼音楽やパンソリの詠唱などであり、日本では人形浄瑠璃文楽や歌舞伎などであって、それぞれの国の文化や伝統には違いありませんが、必ずしも日々の生活にかかわる「生きた」（living）文化や伝統とは言えません。

海女文化は、新たなテクノロジー（例えば、水中メガネやウェットスーツなど）を随時取り込む、文字通り「生きた文化」であり、「生きた遺産」（living　heritage）です。従って、海女文化を世界無形文化遺産へ登録するということは、ユネスコのグローバル・ストラテジーの理念を無形文化遺産についても具体化す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そしてまた、グローバル・ストラテジー導入以前の、不変という意味での真正性に基づいた古いタイプの文化概念に最終的な変更をもたらすことになるでしょう。

3）文化の意味

2003年に採択されたユネスコの世界無形文化遺産の登録分野には、口頭伝承や芸能、祭礼・儀礼、伝統工芸技術などが挙げられています。登録分野の項目を見る限りは、私たちはごく普通の芸能や儀礼をイメージす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しかしながら、これまで実際に無形文化遺産として登録されたのはおおむね完成度が高く洗練され、優美な普遍的な価値を持つと見なされているものばかりです。先に挙げました韓国と日本の無形文化遺産、韓国の宋廟先祖のための儀礼及び祭礼音楽や日本の人形浄瑠璃文楽なども豪華絢爛とは申しませんが、儀礼・芸能としてはきわめて洗練されていると言ってよいでしょう。

登録済みの無形文化遺産が結果的として完成度が高く洗練され、優美なものに限定されているのは、無形文化遺産の登録が、有形文化遺産の登録基準に則って行われているからだと思われます。世界遺産に登録されるべき物件は、今に至るまで、顕著な普遍的価値を持つマスター・ピース（傑出した文物）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てきました。言葉を換えて言いますと、文化遺産については、芸術性が重要な登録要件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海女文化は必ずしも洗練されておらず、優美でもありません。従って、これまでの「顕著で普遍的な価値を持つマスターピース」という登録基準からは外れているかも知れません。

一方、世界遺産委員会は、先に紹介しました世界遺産条約のグローバル・ストラテジーの採択に際し、世界遺産をただ単に「モノ」として扱うのではなく、その遺産を有する人びとのアイデンティティや尊厳等の文化的な表現にもかかわるものとして扱うべきであるとしています。また、2003年に採択された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では、無形文化遺産を、その遺産を有する社会ないし集団がアイデンティティを確立・保持し、文化の多様性や人類の創造性を尊重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と規定しています。

韓国と日本の海女は、海女文化の創造ないし再発見を通して自らの生業（なりわい）・生活を見つめ直し、徐々に海女としての誇りを取り戻し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韓国と日本で開催された海

女シンポジウムや海女フォーラム、海女サミットには、韓国や日本各地の海女さんたちが集合して交流を深めるとともに、自ら意見を述べ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従って、海女文化を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という試みは、ユネスコが世界遺産条約のグローバル·ストラテジー並びに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で明記した文化の意味の拡大解釈、すなわち誇りやアイデンティティと結び付けられた文化の概念を追認し、実体化するという極めて重要な意義を持つものと思われます。

おわりに

国境を越えた、韓国と日本の共同·協力による海女文化の創出ないし再発見と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への登録運動は、グローバル研究の観点に立つならば、ユネスコの世界遺産条約や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というグローバルな文化政策·戦略に対応したごく普通のローカルな現象·運動に過ぎません。しかしながら、グローバル化とローカル化はつねに同時に進行し、しかも相互に影響を及ぼしながら進行するというグローカル化の考え方に基づくグローカル研究の観点に立つと、こうしたごく当たり前の現象·運動がまったくことなった様相を見せ始めます。

ユネスコのグローバルな文化政策·戦略の文脈の中で、韓国の済州島と日本の鳥羽、志摩地方という、言わばローカルな国の中のさらにローカルな地域·地方同士が国境を越えて直接結び付き海女文化という新たな文化を創造、再発見し、さらにまた、海女文化を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という運動を通して、期せずして、グローバルレベルの近代的な文化·社会概念の再考ないし再編を迫る可能性を秘めた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

拙い発表ではありましたが、私の発表を通して、海女文化を生きる海女の皆さんや、海女文化を創造ないし再発見し、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運動を先導している海女研究者や国、地方自治体、あるいはその他の関係者の皆さんが、海女文化をめぐる現象ないし運動が、まさしく世界の社会·文化現象の動きと共振しており、場合によっては世界の社会·文化現象を先導するほどの重要なものであることをいささかなりとも知っ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たのであれば幸いです。